

1. 어느 샌지 7월입니다. 초록빛 창문을 활짝 여는 느낌입니다. 인디언 달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뿔을 가는 달’(키오와 족),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유티 족), ‘들소가 울부짖는 달’(오마하 족)이라 불렀더군요. 오늘이 ‘소서’이고, 11일이 ‘초복’입니다. 더위와 친해져야 할 때인 듯 싶네요.

2.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농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씨를 뿌리면 살아갑니다. 첫 열매를 거둬들이며 감사했던 이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려 나오는 감사가 새롭기를 빕니다.

3. 오늘 갖기로 한 임원회는 다음주일로 변경하여 열립니다.

4. <전교인수련회>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다같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참가할 분들은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영범 집사님(7.4), 강호성 형제님(7.6)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6. 오늘 성도의 교제는 김순자 권사님과 서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7. 지난주 출장차 오신 박중수 씨와 이만춘 씨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8. 오늘의 제단 꽃꽂이-서영범 집사님(생일)

9. 교우 동정-임종란 집사님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고, 심인자 집사님과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여정 되기를 빕니다.

10. 지난주 다같이 월드컵 결승전을 볼 때, 열기를 식히려는 듯 전해진 아이스크림은 참 맛있었습니다. 귀한 마음 나눈 Helmer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11. 오늘은 ‘영어회화반’ 모여야죠! 그 동안 빠진 것, 보충수업은 없는지요?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수요저녁 예배	오후 8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화요새벽기도	오전 6시
아동부(1~6년)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오후 10시
유치부(3세~)	오전 11시	토요성경공부	오전9시30분
영아부(~3세)	오전 11시	청년부 예배	오후5시30분

다음주 봉사위원			
1부기도	유재진교사	2부기도	고무상집사
1부성경	임종란집사	2부성경	이은경성도
수요예배기도		임종란집사	
헌금/안내 위원		유병호장로, 김순자권사	
성도의 교제		박선희, 김희정	

제 40 호

2002, 7, 7

마중물

웃음이 가능한 교회

마중물이란?
덥뜨에서 물이 만나올때 물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로부터
젖는 물...

서툰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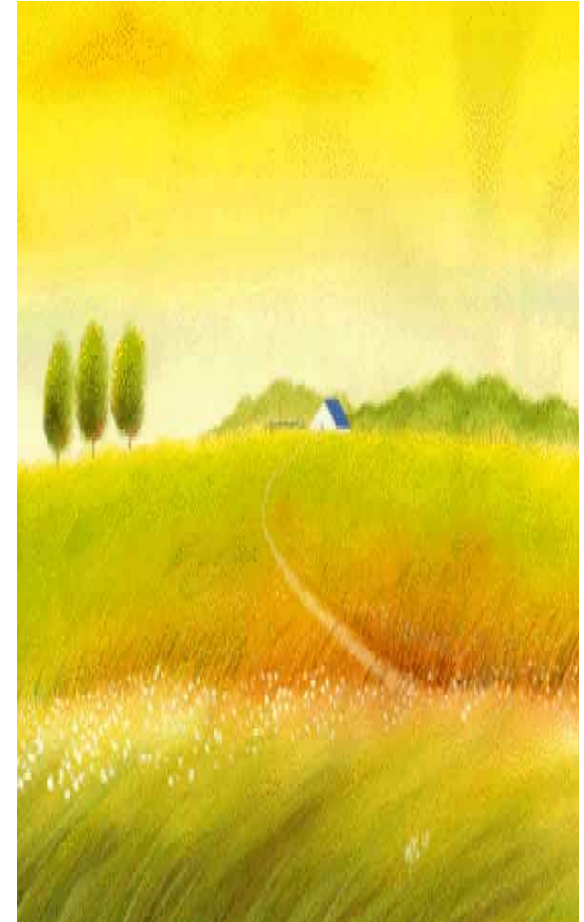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

그 사이
무엇이 더 있을까

빈 들판을 지나온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우리는 무심하게 바라본다

-한희철



Kaiser-Sigmund-Strasse 50, 60320 Frankfurt

교회 : 069 5604 3312

사택 : 069 3482 9890 팩스 : 069 3482 9891

핸디 : 0160 9623 5951

프랑크푸르트감리교회

담임목사 : 한 희 철

solywa@hanmail.net

주일 낮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

조는 집에 자는 며느리 온다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
 잠꾸러기 집엔 잠꾸러기 모이고, 게으른 집엔 게으른 사람 모이기 마련이다. 조는 것에서 자는 것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이 없다.
 남 탓할 게 없다. 탓하는 남 탓 속에 이미 내 탓이 들어 있다.
 결국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달라질 수 없는 법, 내가 새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은 불가능한 법이다.
 언제라도 시작은 '나'에게 있다. -한

1부 : 오전 9시

2부 : 오전 11시

사회: 한희철 목사

목 상 기 도	다 함 께	
* 경 배 찬 송	21 장	다 함 께
* 성 시 교 독	64 번	다 함 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송 영	1 장	다 함 께
공 동 기 도	다 함 께	

우리가 바라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하여 근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없는 것 속에 담긴 주님의 뜻과 그 속에 스며있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하여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유를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많은 길을 걸었고,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주의 뜻을 주의 뜻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기 도	1부	장운 주교사
찬 송	204 장	다 함 께
* 성경봉독	열왕기상 19:1-18	1부 정희교사
찬 양		2부 황순철성도
말씀선포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성가대 한희철목사
봉헌	330 장	다 함 께
* 봉헌기도		사회자
교회소식		사회자
평화의인사		다 함 께
* 찬 송	307 장	다 함 께
* 축 도		한희철 목사

* 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 일 축 하 노래

글.곡 전경숙



아 나 님 사 랑 당 신 에 게 앞 어 요
 초 등 만 생 명 을 당 신 에 게 섰 죠
 정 말 기 바 요 우 리 앞 에 있 는 진 - 구
 아 름 다 운 당 신 의 생 일 축 마 았 니 다
 축 하 합 니 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사 랑 의 만 남 있 는 곳 에
 사 랑 안 에 서 만 길 가 게
 아 나 님 께 서 께 시 도 — 다
 아 나 님 께 서 께 시 읊 — 초 서



수요 저녁 예배 - 이야기와 만나는 성서

저녁 8시

인도 : 한희철 목사

물을 주는 것과 진딧물을 떼어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다. 봄이 지나 초여름쯤 되었을 때, 몸이 아파 거의 일주일 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한 적이 있었다.

거의 내 기억속도 그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몸을 추스를 수 있어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문득 알 수 없는 그윽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고, 곧 그 향기가 다름 아닌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장미꽃 향기임을 알 수 있었다. 순간, 아차 내 장미들... 나는 얼른 물통에 가득 물을 채워 베란다로 나갔다. 놀랍게도 약 일주일 이상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장미나무는 용케도 시들어 버리지 않았고 게다가 딱 한 송이에 불과하지만 노란 장미꽃을 피워내기까지 한 것이었다. 서둘러 물을 주면서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 꽃은 내가 상상한 그런 미끈한 장미꽃이 아니었다. 꽃잎들도 균일하지 않고 찌그러져 있는 것, 말려있는 것 모양새가 정말 볼품없었다. 게다가 꽃대까지 진딧물로 뒤덮여 있었다. “세상에.. 너에게서 어떻게 그런 진한 향기가 나오는거니...”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꽃을 바라보며 감상한 적이 없었다. 정말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꽃은 정말이지 서럽도록 아름다웠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은 아마도 가장 진한 살아있음의 응답, 바로 사랑을 노래한 것이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을 모르는 이는 자신을 위한 나르치스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길 원하지만,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잃어갈 때, 그 추함으로 사람 앞에 서기조차 두려워하지만, 사랑을 아는 이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이 앞에 섬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느라 눈멀고 귀먹고 손이 문둥이 손처럼 닳아지고 진액이 다 빠져 앙상한 나무처럼 사람 몰골 아닌 사람이 되어도, 그렇게 사랑한 이들에게 설사 끝내 추하다고 버림받아도, 결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짐승이 되어 버리지 않는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가 진정한 사람,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리라.(오 예수여! 당신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가 응답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무리 그가 고결하고 눈부신 미로 내게 응답했다해도 만일 그것이 나르치스적인 아름다움이라면 서글퍼할 것이다. 진정한 그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싶어 그의 이름을 계속 설움에 겹도록 불러낼 것이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 또한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닌, 그를 위한 응답, 그를 위한 의미로 다가가길 원한다. 진딧물 가득 덮인 상처투성이 꽃잎으로 볼품 그지없어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에게 꽃으로 피어나기를, 그에게 진정한 나로서 그를 향한 응답을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성민신 전도사(‘마중물’홈페이지에 옮겨왔습니다.)

HOME

www.majungmul.org

하나님의 걸레로!

기독교 잡지인 <빛과 소금>의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원고를 청탁한다는 전화였다. 한국에 있을 때와 이렇게 저렇게 적잖은 원고를 쓰며 지냈지만, 독일에 와서 원고청탁을 받는 일은 낯선 일이었다. ‘내 인생의 스승에 대해 글을 써줄 수 있겠냐고 했다. 소위 ‘나의 멘토’에 대한 글 요청이었다. 멀리서 어렵게 한 전화가 반갑기도 했고, 글의 주제가 내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도 같아 쓰겠다고 했다.

며칠 시간을 보내며 틈틈이 부탁 받은 원고에 대해 생각을 했다. 어떤 분을 써야할까, 어떤 분이 내 삶의 진정한 스승일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다. 한 분은 이현주 목사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단강 사람들’이었다. 휴과 함께 살아가는 단강 사람들을 통해 배운 것이 내겐 컸기 때문이었다.

원고 마감 날짜가 다가왔고, 이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글로 써야할 시간이 되었다. 책상에 앉아 생각하다가 이현주 목사님을 쓰기로 했다.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이 준 영향 등을 마음으로 정리하며 어떤 말로 시작할까 고민을 할 때, 문득 생각 하나가 지나갔다.

내가 내 인생의 스승으로 이현주 목사님을 쓰면 그것을 <빛과 소금>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다. 그 동안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했던 지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입장에 선 교계의 언론매체에서는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글이나 사람을 언급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은 나도 원치않는 일이지만, 자칫 원고를 부탁한 기사를 어렵게 만들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다’며 담당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내가 염려하는 바를 밝히며 편하게 의견을 주면 나도 편하게 받아들일겠다고 했다. 이내 답장이 왔다.

『목사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될는지요. 저는 이곳 편집부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간 제 생각에 많은 것들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신앙이 있어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있어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필자들 역시 그러하고,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취재원 역시 그러하고, 목사님처럼 영향 끼친 사람 하나 소개하기도 그러합니다.

목사님께 글을 부탁드려 놓고 이현주 목사님을 생각지 않았다면 되려 그것이 문제이겠지요. 이현주 목사님이 지금 국내에서, 또는 교계에서 어떤 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이야기되든 목사님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집중하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어떤 삶이, 그 다양한 세계와 사상의 깊이의 어떠한이 목사님께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메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조금씩 <빛과 소금>의 품이 넓어지기를 어리석은 저는 기대해 봅니다. 배려해 주신 점, 다시 고맙습니다. 좋은 원고 기다리겠습니다.』

참 좋은 기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일을 받고는 ‘하나님의 걸레로!’라는 제목으로 편하게 원고를 쓸 수가 있었다.

”대사님, 어느 산에서 오십니까?” 언젠가 버스를 탔더니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와 그렇게 인사를 건네더라고, 한 모임에서 강연을 하던 그분이 말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듣던 우리는 웃음보를 터트리고 말았다.

그렇다.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 솔이 적은 머리는 일부러 머리를 민 듯도 하고, 적당히 늘어진 수영은 ‘도’를 생각나게 한다. 입과 있는 옷과 신발은 더욱 그렇다. 최소한의 것을 편안하(4쪽으로)

게 걸친 생활한복에 하얀 고무신, 생각의 가능성은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입견은 단지 외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어서, 때때로 그분은 삶 자체를 오해받기도 한다. 그분 안에 자유롭게 흐르는 사유의 폭과 진리에 대한 정직한 몰두를, 소위 경건한 자들이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그분만큼 주님 앞에 참되게 서려고 하는 이를 잘 알지 못한다. 그분이 익숙한 곳을 떠나 멀리 가는 것은, 묵묵히 낯선 곳을 향하는 것은 온갖 편견과 속좁음에서 벗어나 그만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그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와 나누기 위함이란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분을 만난 것은 글을 통해서였다. 특별히 동화와 성구단상이었다. 동화가 삶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참 좋은 그릇임을 나는 그분의 동화를 읽으며 알게 되었다. ‘가슴의 땅’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말하고 있었고, 최근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미운 돌맹이’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긍정할 수 있는지를 나직하게 들려주고 있었다. “목사님의 동화가 어린이들에게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게 내 한계’라는 흔쾌한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그분과 그분의 동화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분이 쓴 성구단상을 대할 때면 말씀 앞에 알몸으로 선 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 성경읽기가 작은 시골교회를 섬길 무렵 매일 새벽제단을 찾은 단 한 명의 교우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근거가 되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나는 지금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

행여 그분께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우면서도 내가 내 마음의 스승으로 그분을 떠올리는 것은, 그분의 글도 크지만 사실은 그분의 삶 때문이다. 아깝게 세상을 뜬 임길택 선생이 있다. 어린이를 참 사랑했던 초등학교 교사로, 따뜻한 동시와 동화를 남긴 분이다. 한 번은 어디 들를 곳이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여 차로 모신 적이 있는데, 가보니 병을 얻어 요양 중이던 임선생이었다. 아원 몸을 다 훑는 듯한 기침을 계속하는 임선생은 한 눈에 보기에 병이 깊어,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잠시 전화를 걸 일이 있어 밖으로 나왔다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선뜻 그분들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두 분 내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임선생을 감싸안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가장 낮고 느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편안한 기도였다. 삶이든 죽음이든 모두를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절절한 기도 앞에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절망의 기침을 하며 죽음으로 기우는 한 영혼을 눈물겨운 사랑으로 감싸안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환자의 손을 잡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거룩함이었다.

더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향한 부르심이라 여겨 생각지도 않았던 독일행을 결정했을 때,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시며 두 내외분은 먼길을 찾아와 주셨다. 떠남을 준비하며 찾아 뵈고 인사를 드린 분이 몇 분 있지만, 찾아와 주신 분은 없었다. 따뜻한 밥 한끼를 사고 싶다 하여 식당에서 뵈게 되었는데, 만나자마자 그분은 내게 물었다.

“희철아, 기도 많이 하고 결정했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와 인간의 어두운면을 낯선 땅에서 아픔으로 대면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분이 던진 질문이 떠오르곤 한다. 그 질문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섬기라’는 가르침이 된다. 올해 초 수첩을 하나 장만하며 수첩 앞에 뭔가 글 하나를 쓰고 싶었다. 생각하다가 짧은 글 하나를 썼다. “하나님의 걸레로!” 내가 더러워지는 만큼 교회가 깨끗해진다며 가까이 감내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걸레’라는 고백은 두 내외분의 고백이었다. 이제는 직함과 이름까지 버리고 그저 ‘이아무개’와 그분의 인생의 벼로 살아가는 두 분, 두 분의 삶을 고마움과 소중함으로 마음 깊이 간직한다.』 -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유독 사람을 좋아하는 나에게 유학생들의 가장 힘든 점은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아 야한다는 사실이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이었고, 결혼한 후에도 주로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종종 내 자신과 소리내어 말하는 버릇이 생겼다. 공부하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민신아~ 그만하고 이제 밥 먹자. 공부가 하기 싫고 지치면, 민신아~ 정신 차려야지. 어쩔 땐 그저 이름만 반복해서 민신아~ 민신아~ 성민신! 부르면서 내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버릇...

어제만 해도 그랬다. 지난번 극심한 불볕 더위로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이 다 타 죽었기에 텅 빈 화분들이 문득 마음처럼 허전하게 느껴져 꽃을 사러 집 앞 Gartenmarkt에 갔다. 그곳으로 향하면서 내내 무슨 꽃을 사올까, 무슨 꽃이 더위에도 바람에도 가장 잘 견딜까, 그러면서 아름다울까...하고 생각했는데, 문득 독일 들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라색 라벤델(lavendel) 꽃이 떠올랐다. 그래 라벤델, 너를 사오리라. 어느새 나의 입은 라벤델 라벤델 그 꽃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있었다. 아쉽게도 라벤델은 없었다. 아니 한 포기 남아 있었는데, 먼저 온 어떤 사람이 사 가버렸다. 결국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사들고 집으로 오면서, 눈이 금새 보라색으로 가득차리만큼 그렇게 그랬던 라벤델 꽃무더기를 그저 가슴에만 심어야 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무심히 또는 습관처럼...무언가 당장 나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호칭으로 그저 부르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에게 간절히 부르던 그 어느 날부터 아마도 나는 이름 안에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존재를 부르기 시작했으리라. 그렇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나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찾아주기 바라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의 이름을 여끝으로가 아닌 열망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이 노래했던가! 아름답다. 꽃이 의미하는 그 피상적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 주었다는 것과 거기에 하나의 의미로 응답했다는 그 살아있음이 아름답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의미가 된다는 것,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누군가의 아름다운 의미가 된다는 것... 우리는 종종 그 아름다움의 피상성에 갇혀버려 진정한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누군가의 꽃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누군가의 진정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내 작은 베란다 화분들 이야기로 돌아간다. 작년 봄, 나는 세 그루 장미 나무를 키우기 시작했다. 원래 꺾어진 꽃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뿌리를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는 화분의 꽃을 좋아해 장만한 것이었다. 꽃집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빠진 장미꽃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눈을뜨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6쪽으로)